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관한 연구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Toward Reading

이 연 옥(Yeon-Ok L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2. 검사도구 |
| II. 이론적 배경 | IV. 결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 |
| III. 연구방법 | V. 결 론 |
| 1. 연구대상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독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감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독서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독서 연구학교인 A학교와 B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4, 5, 6학년 52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수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났으며, 태도 점수에서 학교 간,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독서태도가 더 긍정적이었으며, 6학년의 독서태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독서에 주력한 학교보다 독서의 즐거움에 주력한 학교의 독서태도가 더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독서태도, 독자개발, 여가독서, 즐거움을 위한 독서, 독서연구, 독서교육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elementary students' reading attitudes to identify the state of feeling related to reading. For this, 523 elementary students from the fourth to the sixth of 'model schools for reading' participated and comple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show that the average score of reading attitudes was 3.8 out of 5, and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schools, gender and grade levels. Girls' reading attitudes were more positive than boys and sixth-grade students' reading attitudes were the most negative of all grades. The students' attitudes of the school which emphasized reading for pleasure were better than that of reading for academic achievement.

Keywords: Reading Attitude, Reader Development, Recreational Reading, Reading for Pleasure, Reading Research, Reading Education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idisfeel@hanmail.net)

• 접수일: 2011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5일 • 최종심사일: 2011년 9월 23일

I. 서론

독자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능한 독자라 하더라도 독서태도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독서 이외의 다른 선택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서라는 행위를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독자개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독자의 독서 '태도'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태도'는 독서참여(reading engagement)나 독서수행(reading practice), 나아가 독서성취도 및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독서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다양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 이처럼 독서태도는 독자개발 및 독서행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독서교육에서 독서태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태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에 비해 읽기능력은 매우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독서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OECD가 2009년 발표한 보고서²⁾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읽기 부분에서 전체 65개 참여국가 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읽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즐거움지수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와 읽기능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학생들의 읽기능력과 읽기태도 간의 불균형성은 노국향 등³⁾이 수행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읽기성취도는 최상위 순위를 자랑하지만(2000년 6위, 2003년 2위) 읽기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참여 대상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실제 독서율도 저조한 편이다. 2010년 국민독서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아동의 여가활동의 양상은 TV보기, 인터넷 및 게임하기, 독서 순으로 나타나며, 전체 여가활동에서 독서의 비중은 평균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TV보기가 76분, 인터넷 및 게임하기가 87분인 반면에 독서시간은 하루 평균 64분으로 일상생활에서 독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생각하는 독서의 주된 장애요인은 "책읽기가 싫고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낮은 독서율의 주요 배경이 부정적인 독서태도에 기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나 관심 등의 독서태도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실태상황은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시켜 줄 수

1) Michael McKenna and Dennis Kear and Randolph Ellsworth,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0, No.4(October/November/December 1995), p.931.
2)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09) OECD,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2010. 12. 7) 참조.
3) 노국향 등, (2000년)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
4)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있도록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나 독서는 학교 교육 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대한 과업이라는 점에서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독서태도의 습득은 사회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의 읽기능력의 함양과 더불어 바람직한 독서태도의 형성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던 것이다.⁵⁾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독서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독서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 느끼는 감정상태와 수준을 조사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감정과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연구는 학교 및 교사가 독서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독서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관련 연구자를 비롯하여 학교 및 교사, 학부모의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가진다.

II. 이론적 배경

독서태도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사회심리학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독서태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Alexander와 Filler⁶⁾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들은 독서태도를 “독자로서 하여금 독서상황에 접근하게 하거나 피하게 하는 독서와 관련된 감정체제(a system of feeling)”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기초하면 독서태도란 독서라는 상황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고 여기는 개인의 느낌과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서에 대한 감정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책을 읽는 기본적인 이유이며 동시에 책을 읽지 않는 독자들이 책을 읽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⁷⁾로 독서행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Matthewson⁸⁾은 독서태도가 독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관계라는 것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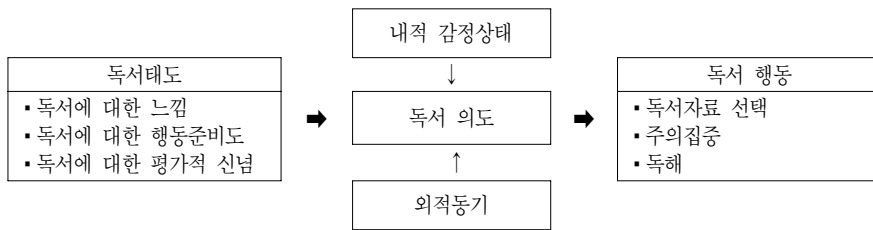
5) W. B. Elley, "Voluntary reading activities," *The IEA study of reading literacy: Achievement and instruction in thirty-two school systems*(Pergamon, 1994), pp.65-148.

6) Alexander and Filler, *Attitudes and reading*(Newark, D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76), Michael Mckenna et al.,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0, No.4(October/November/December 1995), p.934에서 재인용.

7) F. Smith, *Understanding Reading : A Psycholinguistic analysis of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4th ed. (NJ : Erlbaum, 1988), p.177, Michael Mckenna and Dennis Kear,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Vol.43, No.9(May 1990), p.626에서 재인용.

8) M. Mathewson,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R. B. Ruddell et al.,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 of reading*, 4th ed.(Newark, DE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94), pp.1131-1161.

음의 <그림 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느낌, 행동, 신념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된 독서태도는 의도(intention)를 매개로 독서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의 ‘태도’는 책을 읽고자 하는 ‘의도’를 자극하고 이러한 자극된 ‘의도’는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림 1> 독서태도와 독서행동의 상관관계

또한 Michael Mckenna 등⁹⁾은 독서태도는 독서몰두와 실천에 영향을 줌으로써 독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Wixson과 Lipson¹⁰⁾은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독서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독서태도가 독서력을 비롯한 독서성취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¹⁾ 이들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독서태도는 독서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독서에 대한 독자의 느낌은 책을 읽는 이유와 읽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며, 독서태도는 독서능력을 설명해주며 그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따라서 독서능력 및 독서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태도가 독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마태효과(matthew effect)’로도 설명될 수 있다. 독서에서 마태효과란 많이 읽으면 잘 읽는다는 기본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¹²⁾ 글을 많이 읽는 것은 곧 독자가 읽기의 기능이나 전략을 자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읽기경험이 축적될수록 독자들의 읽기능력이 발달하고 기능적으로 독립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9) Michael Mckenna et al., *op. cit.*, pp.934-956.
 10) Wixson and Lipson, *Reading Diagnosis and remediation*(Grenview, IL : Scott, Foresman), Michael C. Mckenna and Dennis J. Kear,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Vol.43, No.9(May 1990), p.626에서 재인용.
 11) Purves and Beach, *Literature and the reader: Research in response to literature, reading interest, and the teaching of literature*(Urbana, IL :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82). ; Walberg & Tsai, "Correlates of reading achievement and attitude : A national assessment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78(1985), pp.159-167. ; Michael Beck, "What are pupil's attitude toward the school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Journal*, 78(1977), pp.73-78.
 12) 최숙기, "중학생의 읽기 동기와 읽기 태도에 관한 상관성 연구," *독서연구*, 23호(2010), pp.347-348.

이 그 요지다. 이러한 마태효과는 기본적으로 독자의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독서라는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 몫으로 남는다.

한편, 독서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위이기에 독서가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형성되지 않고는 독서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향유하는 평생의 독자, 자립적인 독자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독서 그 자체를 즐기고 스스로 향유하며 독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율적인 독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바람직한 독서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한 교육적 과제가 된다. 실제 “아동기부터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은 평생 동안 독서를 계속하는 어른을 만들 수 있다”¹³⁾는 점에서 아동의 ‘독서태도’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읽기교육을 비롯한 독서교육 현장에서는 읽기기능과 지식에 능숙한 기능적 독자를 길러내는 교육이 강조되어 왔다.¹⁴⁾ 이러한 교육은 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발달시켜왔지만, 독서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흥미나 관심,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가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읽기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순위를 자랑하지만, 읽기태도를 나타내는 즐거움지수는 읽기성취도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분야에서도 독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인지적인 측면 즉 이해력, 사고력, 추론, 독해력에 기반한 독서능력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독서태도에 대한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¹⁵⁾ 이러한 경향은 Athey¹⁶⁾가 지적한 바에 의하면, “독서에 대한 감성적인 측면은 정의되기 어렵고, 측정하기도 어려우며, 교육적 효과를 보여주기도 어려운 가변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이나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왔던 것이다.

독서교육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이 이해도, 분석 및 읽기전략과 같은 독서의 인지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학생들의 독서문제는 태도, 흥미와 같은 정의적 영역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읽을 줄 몰라서’, 혹은 ‘읽는 방법을 몰라서’만이 아니라 ‘읽기 싫어서’, ‘읽기에 재미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¹⁷⁾ 따라서 독서교육은 읽기능력의 함양과 즐겨 읽

13) Kush and Watkins and Brookhart, “The temporal-interactive influence of reading achievement and reading attitude,”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Vol.11, No.1(2005), p.29.

14) 임천택, “독서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방법,” *어문학교육*, 22(2000), p.427.

15) Michael Mckenna and Dennis Kear, *op. cit.*, p.626.

16) Athey, “Reading research in the affective domain,” Singer and Ruddell, *Theoretical models and processes of reading*, 3rd. ed.(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1985), pp.527-557.

17) 정혜승, “읽기 태도의 개념과 성격,” *독서연구*, 16호(2006), p.384.

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읽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히나 독서실패율이 높은 아동의 경우 '읽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가 독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독서문제는 '독서태도'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육에서 독서를 즐기는 능동적인 독자를 길러내는 데 무게중심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독서태도와 이에 대한 교육적 중요성은 "독서성취도가 높은 아동을 늘리는 것보다 책을 다양하고 즐겁게 읽는 아동을 늘리는 일이 더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Anderson 등의 주장¹⁹⁾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해 보면,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왜 그러한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조사해봄으로써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서와 감정 상태가 어떠한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독서연구학교로 지정된 A초등학교와 B초등학교 4, 5, 6학년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A학교와 B학교는 2011년(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N시 교육청의 독서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두 학교의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A초등학교의 전체 4, 5, 6학년 학생 361명 중에서 345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B초등학교의 전체 4, 5, 6학년 학생 183명 중에서 178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총 523명이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참여대상자들의 분포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참여자 중에서 남학생(282명, 53.9%)이 여학생(241명 46.1%)보다 41명(7.8%)이 많다. 또한 학년별로는 5학년(188명 35.9%), 6학년(176명 33.7%), 4학년(159명 30.4%)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Christina Clark and Kate Rumbold, *Reading for pleasure: A research overview*(National Literacy Trust, 2006), p.7.

19) R. Anderson et al, *Becoming a nation of readers: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reading.* (Champaign, IL :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1985), 정혜승, 전계논문, p.386에서 재인용.

〈표 1〉 참여 대상자들의 분포

구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A 학교	남자	50(14.5%)	78(22.6%)	60(17.4%)	188(54.5%)
	여자	51(14.8%)	54(15.7%)	52(15.1%)	157(45.5%)
	계	101(29.3%)	132(38.3%)	112(32.5%)	345(100%)
B 학교	남자	21(11.8%)	31(17.4%)	42(23.6%)	94(52.8%)
	여자	37(20.8%)	25(14.0%)	22(12.4%)	84(47.2%)
	계	58(32.6%)	56(31.5%)	64(36.0%)	178(100%)
합계	남자	71(13.6%)	109(20.8%)	102(19.5%)	282(53.9%)
	여자	88(16.8%)	79(15.1%)	74(14.1%)	241(46.1%)
	계	159(30.4%)	188(35.9%)	176(33.7%)	523(100%)

대상 학교는 현재 독서연구학교로 독서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A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목표로 교과 관련 학습독서에 주안점을 두고 독서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B 초등학교는 독서습관 형성을 목표로 책읽는 즐거움을 얻도록 하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두 학교의 세부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대상 학교의 독서교육 활동

구분	연구주제	세부 활동	
A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정보활용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제해결력 신장 - 독서 및 도서관 활성화 기초 마련 - 문제해결 역량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독서 20분 - 독서훈화 - 독서명언 - 세계 책의 날 행사 - 원화 전시회 - 독서골든벨 - 북콘서트 - 독서의 달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통장 - 스토리텔링 - 토요북아트 - 도서관자료확충 - 독서동아리 조직 및 운영 - 학부모독서동아리 운영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 - 교과관련 도서관활용교육
B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친화프로그램을 통한 독서습관형성 - 독서습관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 교과과정과 연계한 도서관활용교육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및 학급 도서확충 - 학급독서환경조성 - 새책전시회, 원화전시회, 주제별전시회, SMS 책소개하기, 교과연계도서 소개 - 독서수첩 제작 및 활용 - 세계 책의 날 행사 - 아침독서 20분 - 달빛독서교실 - 여름방학독서교실 - 스토리텔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퀴즈/독서골든벨 - 책속 보물찾기 - 북콘서트 - 작가와의 만남 - 가족독서신문만들기 - 도서관환전 - 독서토론대회 - 이야기들려주기 대회 - 학부모독서동아리운영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활용 - 교과 관련 도서관활용교육

한편, A 학교와 B 학교의 독서연구학교의 운영방향 및 세부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도서관 및 독서담당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보하였다. A 학교는 2011년 3월부터 사서교사가 도서관운영 및 독

서를 담당하고 있으며, B학교는 2011년 3월부터 계약직 사서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는 학년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2. 검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독서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McKenna와 Kear²⁰⁾가 1990년에 개발한 초등학교 독서태도 검사 도구(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여가를 위한 독서태도와 학습을 위한 독서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도구는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감성적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정서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연구자는 이 도구의 20문항 중에서 여가독서를 측정하는 항목 중에서 8문항을 채택하였고, 연구자가 도서관에 관한 1항목을 추가하여 총 9문항을 활용하여 독서태도를 측정하였다(〈표 3〉 참조).²¹⁾

〈표 3〉 독서태도 검사 도구

1.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2. 집에서 독서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 방학 때 독서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4. 노는 것 대신에 독서를 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5. 선물로 책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6. 새 책을 읽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7. 책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떠한가요?
8. 서점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9. 도서관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한편, McKenna와 Kear가 개발한 검사도구에서는 각 문항이 독서태도에 대한 질문과 가필드(Garfield)라는 만화캐릭터를 활용하여 네 가지 얼굴표정(매우 좋아하는 표정, 좋아하는 표정, 싫어하는 표정, 매우 싫어하는 표정)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대신에 본 연구자는 '너무 좋아한다', '조금 좋아한다', '그저 그렇다', '싫어한다', '매우 싫어한다'라는 다섯 가지 척도를 제시하였다.

20) Michael McKenna and Dennis Kear, "Measuring attitude toward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Vol.43, No.9(May 1990), pp.626-639.

21) 마지막 9번 항목인 "도서관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라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검사도구의 사용과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은 ‘독서’라고 하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가요? 그림을 그려보거나 글로 표현해보세요” 질문을 제시하여 독서 및 독서경험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느낌과 정서를 그들의 언어(글과 그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초등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들의 언어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독서태도에 대한 양적평가 결과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IV. 결과에 대한 분석과 논의

초등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는 독서태도 양상을 조사분석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의 독서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산출되었다. ‘너무 좋아한다’(5점), ‘조금 좋아한다’(4점), ‘그저 그렇다’(3점), ‘싫어한다’(2점), ‘매우 싫어한다’(1점)는 5가지 척도에 기초해서 보면, ‘조금 좋아한다’(4점)에는 약간 못 미치는 점수이다.

학교별 독서태도 경향을 살펴보면(〈표 4〉 참조), A학교의 평균점수는 3.78점이고, B학교는 3.90점으로 B학교의 독서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 태도에 있어서는(〈표 5〉 참조), 마지막 도서관에 대한 질문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B학교가 A학교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²²⁾ 이러한 차이는 A학교와 B학교의 독서연구학교의 목표와 운영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목표로 이와 관련한 교과 관련 학습독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B초등학교는 독서의 즐거움 및 독서습관 형성을 목표로 이와 관련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업성취도 향상에 치중한 A학교보다는 독서의 즐거움 향상에 치중한 B학교의 독서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는 독서의 즐거움에 대한 강조가 독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학교 독서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표 4〉 초등학생의 독서태도 결과 종합

구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A 학교	3.85	4.01	3.50	3.78
B 학교	4.09	3.89	3.71	3.90
전체 학교	3.94	3.96	3.58	3.82

22) 도서관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라는 항목에서는 A학교가 4.15점 B학교는 4.13점으로 A학교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항목별 태도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긍정성이 높은 항목은 '새 책을 읽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4.02점), '책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떠한가요?'(4.33점), '서점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4.30점), '도서관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4.14점)로 4점을 상회하였다. 이 중 '책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떠한가요?'(4.33점)가 최고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태도를 형성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독자의 호기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²³⁾ 이러한 결과는 두 학교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핵심요인이 학생의 지적호기심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는 두 학교의 독서프로그램 계획과 구성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보다는 서점에 가는 것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에 힘입어 학교도서관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도서관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정서가 아직은 서점에 약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긍정성은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세부항목별 독서태도

세 부 항 목	A 학교	B 학교	전체
1.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38	3.51	3.42
2. 집에서 독서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86	3.97	3.90
3. 방학 때 독서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3.59	3.66	3.61
4. 노는 것 대신에 독서를 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2.85	2.87	2.85
5. 선물로 책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3.80	4.04	3.88
6. 새 책을 읽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3.95	4.13	4.02
7. 책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떠한가요?	4.32	4.35	4.33
8. 서점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4.28	4.32	4.30
9. 도서관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4.15	4.13	4.14

한편, 앞서 A 학교보다 B 학교의 독서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독서태도에 대한 학년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4학년과 6학년의 경우는 B 학교의 독서태도 평균점수가 높지만, 5학년은 A 학교가 B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 학교의 경우 독서태도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조금씩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으나, A 학교의 경우는 5학년, 4학년, 6학년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학교 모두 6학년의 독서태도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6학년의 독서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A 학교는 예외적으로 나타나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

23) 이순영, "독서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16(2006), pp.363-365.

갈수록 초등학생들의 독서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난다. 영국의 초등학생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독서태도를 조사한 Sainsbury와 Schagen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들의 학년이 높을수록 독서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⁴⁾ 또한 미국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태도를 조사한 McKenna 등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에 더해, Eccles 등의 연구에서도 미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 비해 저학년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믿음과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²⁶⁾ 아울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읽기태도를 연구한 윤준채와 이형래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²⁷⁾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독서태도를 가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우선,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등학생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독서를 통한 정서적 즐거움을 경험할 기회를 감소시켜 긍정적인 독서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²⁸⁾ 실제 우리나라 아동의 여가활동 양상을 보면, TV보기 > 인터넷하기 > 게임하기 > 독서 순으로 독서가 전체 여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에서 독서의 비중 또한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경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공부 및 성적과 관련된 사교육에의 노출시간이 증가하고, 독서 또한 즐거움을 위한 목적보다는 학업성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짐으로 인해 독서를 통한 정서적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점도 독서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태도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 교사, 부모들이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즐거움을 위한 독서보다는 학업과 관련된 학습독서를 강조하는 데서도 독서태도의 부정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독서태도의 경향은 다음의 <표 6>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남학생의 독서태도 평균점수는 3.60점이며, 전체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4.06점으로 여학생의 독서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평균 독서태도는 '조금 좋아한다'(4점)에 해당되며, 남학생들의 평균 독서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독서태도에 대한 성별 경향을 학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A 학교,

24) Marian Sainsbury and Ian Schoagen, "Attitudes to reading at ages nine and eleven,"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Vol.27, Issue.4(2004), pp.373-386.

25) Michael McKenna and Dennis Kear and Randolph Ellsworth, "Children's attitudes toward reading: A national survey,"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30, No.4(October/November/December 1995), pp.934-956.

26) Eccles et al.,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 and task perceptions during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Vol.64, Issue.3(June 1993), pp.830-847.

27) 윤준채, 이형래, "초등학생의 읽기태도 발달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0집(2007. 2), pp.161-190.

28) 상계논문, p.182.

29)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국민독서실태조사(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10), p.160.

B학교 모두 모든 학년에서 여학생의 독서태도가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남녀차이의 정도가 학년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학년은 A, B 학교 동일하게 4학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A학교의 경우는 4학년(0.76) > 6학년(0.43) > 5학년(0.27) 순으로 차이가 나는 반면에, B학교는 4학년(0.66) > 5학년(0.37) > 6학년(0.28) 순으로 차이가 난다. B학교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태도에 대한 남녀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서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학년은 A, B학교 동일하게 6학년 남학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성별 및 학년별 독서태도

구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A 학교	남자	3.47	3.89	3.30	3.59
	여자	4.23	4.16	3.73	4.05
	차이	0.76	0.27	0.43	0.46
B 학교	남자	3.67	3.70	3.62	3.65
	여자	4.33	4.07	3.90	4.14
	차이	0.66	0.37	0.28	0.49
전체 평균	남자	3.60			전체 남녀차이 : 0.46
	여자	4.06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독서태도는 학년과는 상관없이 여학생들의 독서태도가 남학생들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앞서도 언급한 Sainsbury와 Schagen의 연구(2004), McKenna 등의 연구(1995)에서도 여학생들의 독서태도가 남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학생들의 독서태도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독서프로그램 계획과 구성에서도 남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적극 반영하려는 학교 측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켜준다.

한편, 본연구에서는 검사도구를 활용함과 동시에 독서 및 독서경험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느낌과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정서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독서’라고 하면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가요? 그림을 그려보거나 글로 표현해보세요”라는 질문지를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523명의 응답자 중 글과 그림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학생(15명)과 미응답자(3명)를 제외한 나머지 505명의 학생들이 표현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그들의 느낌을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나, 이를 유형화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4 가지 유형, (1) 독서 가치에 대한 표현, (2) 독서경험에 대한 긍정적 표현, (3) 독서경험에 대한 부정적 표현, (4) 독서 관련 경험과 대상의 연상으로 유형

화되었다(〈표 7〉, [부록 1], [부록 2] 참조).

〈표 7〉 독서 및 독서경험에 대한 표현

구분	학생수 (%)	주요표현
1) 독서가치에 대한 표현	167 (33.07)	지식이 쌓인다. 지식을 주는 도구, 지적 자산, 마음의 양식, 배움과 생각의 뿌리,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 똑똑해진다, 유익하다, 학습에 도움이 된다, 집중력·상상력·사고력·이해력이 증가된다, 어휘력이 향상된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다
2) 독서경험에 대한 긍정적 표현	91 (18.02)	재미, 감동, 흥미, 행복, 기쁨, 놀라움, 신기함, 기대감, 포근함, 편안함, 평화, 마음의 안정, 뿌듯함, 여행을 하는 기분, 모험하는 기분,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상상극장에 온 것 같다, 블랙홀같다, 사건과 감동이 어우러지는 베틀 끝, 새로운 세상, 가슴이 두근두근, 책속에 빠져드는 기분, 친구같은 존재
3) 독서경험에 대한 부정적 표현	89 (17.62)	그저 그렇다, 귀찮다, 그냥 싫다, 지루하다, 잠 온다, 따분하다, 재미없다, 심심하다, 놀고 싶다, 머리 아프다, 눈이 아프다, 답답하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끔찍하다, 죽고싶다
4) 독서 관련 경험과 대상의 연상	158 (31.29)	도서관, 서점, 사서선생님, 가을, 독서의 계절,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독서감상문, 독서퀴즈, 독서록, 독서기록장, 독서수첩, 아침독서, 아침자습시간, 학습, 국어공부, 공부, 숙제, 칩묵, 조용해야함, 정독, 책, 나만의 책, 추천도서목록, 내가 좋아하는 책, 만화책, 동화책, 주인공, 책을 읽는 자기모습 표현
계	505 (100)	

가장 많은 학생들이 독서가 주는 유익성이나 긍정적 가치에 대해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167명(33.07%)의 학생들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독서를 하면 지식이 쌓인다(지식을 주는 도구, 지적 자산)', '마음의 양식', '배움과 생각의 뿌리',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 '똑똑해진다', '유익하다', '학습에 도움이 된다', '집중력·상상력·사고력·이해력이 증가된다', '어휘력이 향상된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다' 등과 같이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자신의 호불호를 떠나 독서에 대한 가치와 유익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독서경험에 대한 느낌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경우다. '재미', '감동', '흥미', '행복', '기쁨', '놀라움', '신기함', '기대감', '포근함', '편안함', '평화', '마음의 안정', '뿌듯함'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여행을 하는 기분', '모험하는 기분', '주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며, '상상극장에 온 것 같다', '블랙홀같다'라며 그들의 독서경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건과 감동이 어우러지는 베틀 끝', '새로운 세상', '가슴이 두근두근', '책속에 빠져드는 기분', '친구같은 존재'라고도 하였다. 91명(18.02%)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독서경험에 대한 느낌을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독서경험에 대한 느낌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유형이다. 89명(17.62%)의 학생들이 자신의 독서경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범주에 속하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그

저 그렇다', '귀찮다', '그냥 싫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그들의 심리적 정서를 나타냈다. 또한 '지루하다', '잠 온다', '따분하다', '재미없다', '심심하다', '놀고 싶다'라는 표현과 아울러 '머리 아프다', '눈이 아프다', '답답하다', '피곤하다'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짜증난다', '끔찍하다', '죽고싶다'라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있었다.

마지막 유형은 독서와 관련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연상하고 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들이 이에 해당한다. 158명(31.29%)의 학생들이 이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떠올린 구체적인 대상과 경험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서점', '사서선생님', '가을', '독서의 계절'이 떠오른다고 하며 이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현재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는 독서활동인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독서감상문', '독서퀴즈', '독서록', '독서기록장', '독서수첩', '아침독서'를 떠올린 학생도 있다. 또 학생들은 '나만의 책', '추천도서목록',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읽은 책', '만화책', '동화책', '주인공' 등 본인이 읽은 책을 비롯한 책에 대한 경험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였으며, 책을 읽는 본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학생들도 많았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학습', '국어 공부', '공부', '숙제'와 같은 학습적인 것을 연상하기도 하였으며, '침묵', '조용함', '정독'이 생각난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독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서 밝혀진 독서태도에 대한 양적 결과와 함께 학교 측의 독서교육과 관련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예컨대 많은 학생들이 독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자각을 하고 있다는 결과는 긍정적인 독서태도와 독서경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독서의 가치와 유익성을 잘 자각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독서행위나 경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당 학교가 어떻게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독서라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하여 이를 지속시켜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도 해당 학교의 과제로 남는다.

V. 결 론

지금까지 독서연구학교 A와 B에 다니는 초등학생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정서와 감정을 비롯한 독서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독서태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조금 좋아한다'(4점)에는 약간 못 미치는 점수로 나타났다. 독서태도 점수에서 학교 간, 성별,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간의 독서태도 경향을 보면, 독서의 즐거움 및 독서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교과 관련 학습독서 수행에 중점을 두는 학교의 학생들보다 독서태도가 보다 긍정

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년별 경향은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고학년인 6학년의 독서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성별에 따른 독서태도 경향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독서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독서와 독서경험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정서표현은 (1) 독서 가치에 대한 표현, (2) 독서경험에 대한 긍정적 표현, (3) 독서경험에 대한 부정적 표현, (4) 독서 관련 경험과 대상의 연상 이라는 4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이중 많은 학생들이 독서의 유익성이나 긍정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독서태도 즉,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서와 감정상태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독서의 즐거움에 주력한 학교가 학습관련 교과독서에 주력한 학교보다 독서태도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독서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의 독서태도가 여학생보다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는 남학생의 독서태도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독서프로그램 계획과 구성에서도 남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려는 학교 측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아울러 고학년이 될수록 학생들의 독서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긍정적 독서태도를 지속시켜줄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

향후,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방법에 입각해서 학생들의 독서태도 조사를 수행한다면 단위 학교 학생들의 독서태도의 현재적 수준을 비롯하여, 독서태도에 대한 학년별, 학급별, 성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학교의 대응 방향과 개입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독서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나,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와의 비교, 일반학교간의 비교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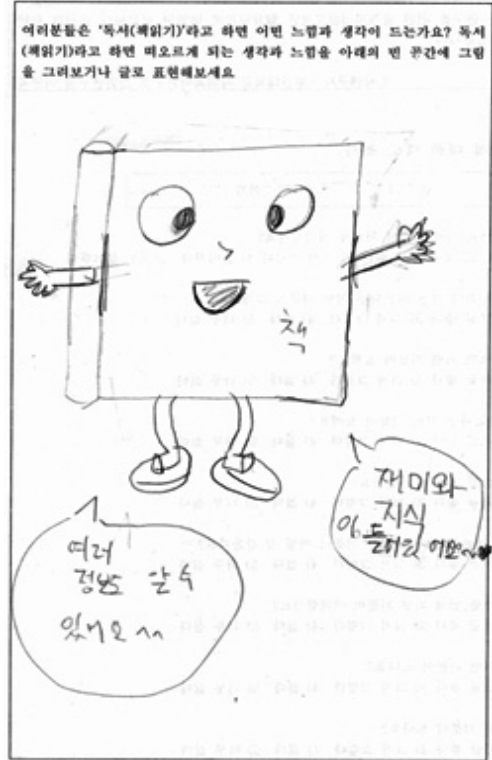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부록 1]

<도구2> 독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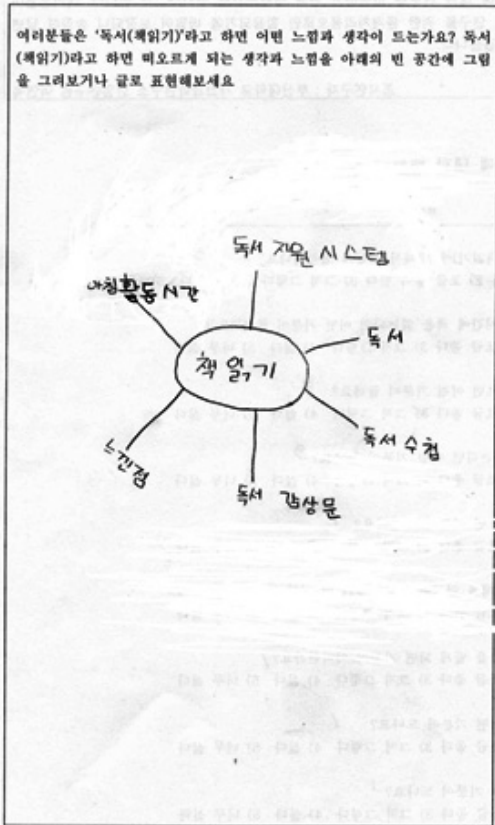


<도구2> 독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지



[부록 2]

<도구2> 독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지



<도구2> 독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지

